

# 한빛원전 핵폐기장 건립, 결국 현실로

### 정부, 핵폐기물 처리계획 확정

### 시민단체 “어른 완전히 무시”

### 주민 반발 장기화 예고

지역 주민 반발에도 정부가 오는 2024년 포화예정인 영광 한빛원전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기존에 없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광주일보 5월 26일자 1면·6면>

정부는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영구저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관리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하지만 영광주민들을 비롯한 4곳의 원전 소재 주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인허가용 지하 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저분 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4개 지역 원전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건립은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저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부지 기본조사 → 주민 의사확인 → 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구저분장은 오는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폐연료봉에서는 무려 10만년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탓에 지난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마다 영구저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을 추진하다가 국민 갈등만 남고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영광 주민들은 정부가 원전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한 단계저장 시설이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를 품고 정부가 계획안을 예고한 지난 5월부터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에도 정부는 그러나 영구저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되는 한빛원전을 비롯한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설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저장하고 원전 가동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물탱크(수조)에 저장 중이며,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원전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지역 15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반발에도 원자력진흥위의 핵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한 뒤 장기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페루 정글’ 비상 선포 2개월 페루정부가 불법 금광채굴로 인한 광범위한 수은 오염으로 정글지대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페루 정글 현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마드레 데디오스 라팜파에서 불법 채굴로 산림이 벌어진 현장의 항공사진. <뉴욕타임즈 캡처>

## 광주 서구 ‘금당산 가족 숲 체험’ 29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시 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숲 속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통!통! 금당산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금당산에서 진행된다. 5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총 360명(회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엄마, 아빠와 자연 속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 등 동식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숲 전문가와 함께 나뭇가지, 나뭇잎 이용해 가족 얼굴 만들기, 바늘놀이, 곤충 관찰 등을 할 수 있다.

숲 체험활동 관련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공원녹지과(062-360-7610)로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해 여름 광주시 서구 금당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교사의 지도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 활짝 핀 내장산 진노랑상사화

### 탐방로 이용 서식지 보호 필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멸종위기종 식물(II급)이자 내장산의 깃대종인 진노랑상사화(사진)가 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노랑상사화는 꽃이 피는 시기와 잎이 나는 시기가 달라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상사화(相思花)의 일종으로 한반도 고유종이다. 서식지가 남부지역 일부에 국한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피는 시기와 열매 맺는 기간이 앞당겨졌으며 이처럼 이상기후가 지속할 경우 개체군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진노랑상



사화의 희귀성으로 불법채취자 및 일부 탐방객에 의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정규 탐방로 이외의 샛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제공>

## 영산강환경청, 오늘 보성서 주민과 ‘환경 토크콘서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7일 오전 10시에 보성군 복내면중합복지관에서 환경청, 지자체, 주민대표, 생태분야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수지환담(水地環談)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땅과 물이 만나는 곳에서 환경을 논한다는 의미로 행사명도 수지환담 콘서트로 명명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자체, 주민대표, 생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참여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환경정책인 토지매수 및 생태벨트조성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그간 딱딱하게 진행됐던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에서 탈피, 주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토지매수, 감정평가, 생태벨트 조성, 사후관리 분야 등으로 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게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5년까지 수계기금 3023억원을 투입, 개발된 토지 등 16,467ha를 매입하고 이를 녹지와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해 하천 건강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논하고, 해결하는 현장해결 서비스를 확대하고 토지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휴가철 국립공원 사망 1위 심장돌연사

### 음주 익사사고 2위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망사고는 심장돌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철인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장돌연사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익사사고 8건, 추락사고 6건 등의 순이다.

특히 익사사고 8건 중 6건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따라서 음주 후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당부했다.

일교차가 큰 환경기에 주로 발생하는 심장돌연사 사고는 여름철 폭염속에서 무리하게 산행할 경우에도 일어나기 쉽다.

특히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폭염 속에서 신체저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으로 무리하게 올라가는 산행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업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b>16</b>	스카이라이프 <b>13</b>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	해남 영암 진도 장흥 <b>16</b>	IPTV <b>18</b>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